

경남도 '2025 투자 설명회' 개최

기업당 300억 이상 지원 가능... 투자유치 10조 시대 연다

우주항공 등 경남산업 경쟁력 소개
전국 최고수준 인센티브 제도 갖춰
“대한민국 산업·경제 중심지 도약”

경남도가 연간 투자 유치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경상남도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의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수도권 소재 잠재 투자 기업 최고 경영자(CEO), 국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왜 지금, 경남에 투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 비전, 투자 인센티브,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경남형 투자생태계를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남 투자 환경 및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원형사진) 박완수 도지사

지원제도 설명, 경남 산업 육성 정책 소개, 우수 투자 기업 표창 수여, 맞춤형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전국 최고 수준의 과격적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 시 지방비를 포함해 총 300억원 이상 지원도 가능하다.

경남은 5만여 개 제조업체가 밀집한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심장으로,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전 산업 기반을 안비한 지역이다.

우주항공, 방위, 원자력,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전국 1위를 비롯해 기계 산업 전국 2위, 자동차 부품 산업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산업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내에는 21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해 지역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22개 대학에서 매년 1만 9000여 명의 인재가 배출되고, 이 중 3000여 명이 기술전문 인력으로 산업 현장에 진출한다.

박완수 도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는 투자 유치를 도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전담기관인 경남투자청을 신설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92개사, 8조 3806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28일 투자 협약식을 통해 사상 첫 연간 투자 유치 10조원 시대를 맞이할 예정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누적 투자 유치 규모는 30조 7853억원에 이른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은 우주항공, 방위, 원자력, 조선해양플랜트 등 미래 성장산업에서 전국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올해 사상 첫 연간 투자 유치 10조원을 넘어서고, 이를 마중물 삼아 경남을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아고다

관광·교류 협력 MOU 체결

부산시는 27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아고다(Agoda)와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성장 중인 글로벌 OTA인 아고다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첫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아고다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동 마케팅 추진과 맞춤형 관광상품 기획, 부산 관광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의령군

‘아이돌봄 서비스’ 최우수 등급

의령군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A)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우수 기관 대열에 선정되었다.

의령군은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뛰어난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8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며 약 7000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인 부담금 60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해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25일 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APEC 정상회의의 경주시 현장상황실'을 찾아 APEC 정상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한 후 근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경주시, APEC 현장상황실 설치

현장 중심 24시간 대응체제 돌입
주낙영 시장, 주요시설 점검 나서

경주시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장 중심의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APEC 정상회의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을 앞둔 25일부터 시청 대회의실에 경주시 APEC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현장상황실은 교통, 환경, 상하수

도, 안전, 숙박, 위생 등 9개 분야별 대응반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경북도,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운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장상황실 가동에 맞춰 소노캄 경주호텔, 경주엑스포대공원, 보문관광단지 등 주요 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품격과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는 무대”라며 “모든 대응은 글로벌 기준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김해시 “분청도자기축제 놀러오세요”

제30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가 11월 4일부터 9일까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과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분청의 시간, 세종을 만나다’를 주제로,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축제의 위상과 도예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30주년 기념

영상 기획전, 세종대왕자 태항아리 특별전시, 분청도자기 특별전시, 제16회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제17회 경남찾사발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마련돼 국내 도예 예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은 조선유랑극단의 퍼포먼스, 뽕뽕이 공연, ‘분청여제인’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 평생학습박람회, 관광객 5만명 호응

포항시 전시·강연 등 프로그램 풍성

포항시는 지난 24일 개막한 ‘제1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2025 포항’이 5만여 명의 관광객 호응 속에 경북 22개 시·군의 다채로운 평생학습을 선보이며 2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흘 동안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는 경북 22개 시·군을 비롯해 150여 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체험 부스를 운영해 각종 전시와 강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개막식에서는 트롯 가수 전유진과 감성 보컬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평생학습 화합 한마당과 경북 동아리 경연대회, 폐막식으로 마무리됐다. 방승인 선의 ‘행복나눔’ 특강과 인문학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도 시민들

의 호응을 얻었다.

만인당에서는 22개 시·군이 참여한 홍보채널관이 운영돼 지역 특색을 살린 전시와 AR 체험,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인공지능 로봇과의 오목 대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XR 체험존에서는 VR 사격, 증강현실 등 4차 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전국 청소년 하브루타 토론회와 평생학습 동아리 작품 전시가 함께 열려 경북 평생교육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됐다.

포항체육관에서는 도내 평생학습 기관과 동아리 61개 부스가 운영돼 직접 체험과 기관 홍보가 함께 이뤄졌으며, 케이팝대문헌터스 코스프레 체험, 마술 공연,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로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울릉군, ‘군민의 날·독도의 날’ 기념식 성료

임선자·정재화 ‘울릉군민상’ 수상

울릉군은 지난 25일 울릉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울릉군민의 날 및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척 143년, 설군 1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독도의 가치와 울릉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독도에서 피어난 80년의 빛, 새로운 울릉의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군민의 다짐’ 영상 상영이었다. 울릉군민 80명이 직접 참여해 “더 친절한 울릉, 더 깨끗한

울릉, 더 자랑스러운 울릉”을 다짐하며 울릉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기념식은 울릉문화원장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례, 군민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울릉군민상’에는 임선자 울릉팻캐스터, 정재화 바다환경지킴이, 울릉문화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특별공로상’은 박태하 울릉장학회 이사, ‘명예군민증’은 숙초연탄은행 김상복 대표에게 각각 수여됐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유럽 씨가 감사패를, 서승환·차승우 씨가 표창패를 각각 받았다.

/울릉(경북)=박병률 기자 pbr34@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확대

사천시는 침체된 소비 분위기를 개선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사천사랑상품권의 캐시백 혜택을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사천사랑상품권 결제 시 18%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13%였던 적립률이 5%p 오른 18%로 조정되면서, 시민들은 일상적 소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감사 이벤트

영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은 이벤트를 마련했다.

시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기부자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벤트 기간 동안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모든 참여자에게는 기존 답례품 외에 1만 원 상당의 추가 사은품이 증정된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